

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

좋은 아이디어의 수집

많은 아이디어를 내면 좋다고 하니까 교향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. 즉 벽돌의 용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내면 이것은 무엇인가의 밑받침으로 쓰이겠다는 생각을 한다. 그래서 주전자 받침, 찻잔의 받침, 도자기의 받침 등등 무한히 나열한다. 또 재떨이의 용도를 문제에서는 무엇을 담는다는 식으로 말하면 수많은 답을 낼 수가 있다. 그러나 이것은 의미가 없다. 이는 수는 많지만, 생각하는 각도는 하나이기 때문이다. 「받침대」라든가 「용기」로서 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.

발명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로 다각도에서 생각한다. 한 가지 각도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은 발명인이 될 수 없다.

그래서 발명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수량과 동시에 그 문제를 얼마만큼의 각도에서 보고 있는가를 평가해보면 알 수 있다. 붉은 벽돌의 성질을 놓고 다시 생각해보자. 무게, 길이, 거칠음, 붉은 색, 가루로 만들 수 있음 등등 벽돌의 특성을 체크해보면 수 많은 용도를 생각해낼 수 있다.

분석 및 통합력의 향상

발명인은 분석력과 통합력이 뛰어나다.

분석이란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나누는 두뇌의 작용이다. 나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나누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나누는 것이다. 큰 문제는 그대로 보고 있으면 좀처럼 해결할 수 없다. 그래서 작은 몇 개의 문제로 나뉘고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종합하는 것이다. 마

키아벨리는 ‘분할하여 통치하라’고 말했다. 커다란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, 나뉘어서 각각 통치하며,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이다. 문제해결의 경우도 문제를 나뉘어 축소화됨에 따라 해결안이 쉽게 나오게 된다. 발명인은 이 테크닉에 뛰어나다.

예나 지금이나 발명인은 분석력에 뛰어나, 시대적 첨단기술발전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.

그런데 분석보다도 통합이 더욱 어렵다. 분석하면 세세한 문제도 나눌 수 있으므로 그 하나하나의 해결안은 비교적 용이하게 나온다. 그러나 각각의 해결안을 하나로 정리해서 전체의 해결안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안된다.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나온 아이디어를 통합, 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. 이는 합하는 과정에서는 발명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.

한 예를 들어본다. 야구단의 감독이 9명의 주전 선수 배팅 순서를 결정한다고 하자. 그때의 가능성은 몇 가지나 있을까? 무려 36만2천8백80가지나 있다고 한다. 통합이 어려운 것은 그 때문인 것이다.

일반적인 문제해결의 경우는 문제를 분석하여 아이디어를 내기 쉽게 한다. 그 경우 대부분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좋다. 분석이란 근원으로 소급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아이디어를 내기 쉽게하는 첩경인 것이다.

원인이란 무엇인가를 세분화해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. 그러므



발명인의 또 하나의 특성은 남의 아이디어를 개선하여 더욱 좋은 것으로 만드는 데에 있다.

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지만 진실로 새로운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.



로 분석을 할 때에도 지식경험을 늘릴 필요가 있다. 만약 원인을 세분화하는데 자신이 없으면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된다. 체크리스트란 어떤 문제를 생각할 경우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각도를, 그 문제에 있어서의 전문가가 미리 생각해서 고안한 형태로 나열한 것이다. 자신의 생각을 재점검하며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, 분석적 사고방식이 자동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.

기존 아이디어의 개선력 향상

발명인의 또 하나의 특성은 남의 아이디어를 개선하여 더욱 좋은 것으로 만드는 점에 있다.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고 진실로 새로운 것은 뜸없지만 재료는 모두 남은 것이다. 재료는 선인들이 남겨두고 간 것이다. 이와같은 남의 재료를 자신의 뜨거운 용광로에 녹여 새로운 형태의 그릇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. 그런 의미에서는 모방이 어느 정도 이용된다. 어떤 발명인이라도 모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. 문제는 창출된 아이디어와 그 근원이 되는 것과의 사이에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는가 하는 정도이다.

세계발명사에 남을 3대발명이란 조셉의 철

조망, 마쓰시타의 쌍소켓, 루드의 코카콜라 병이다. 이것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. 비록 세계 3대발명에 손꼽히는 않지만, 연필과 지우개를 결합하여 지우개가 붙은 연필을 만든 화가 하이만의 발명도 기억할만하다. 또한 -자 드라이버를 +자 드라이버로 개선한 필립의 발명도 세계적인 발명으로 손꼽히고 있다.

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? 그들은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도 우수했지만,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아이디어를 잘 결합시킨 점에서 뛰어난 것이다.

결국 발명인은 아래 5가지 특성에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다. 그 5가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.

- ▲ 문제의 존재에 대한 접근력
- ▲ 아이디어의 수가 많음
- ▲ 여러가지 각도에서 본 아이디어 창출력
- ▲ 분석력과 통합력이 뛰어나
- ▲ 남의 아이디어 개선·결합에 뛰어난 발명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다섯 가지를 연습해서 신장시켜가면 되는 것이다.

<♣> <王>

아이디어뱅크 안내

본회에서는 산업 및 생활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종합심사후 연말에 시상합니다.

관련기업에 실시알선도 하는 아이디어뱅크에 많은 이용바랍니다.(555-6845)